



# ＋ 설날 가정 예배 ＋

##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8장 ..... 다 같 이  
(예수 우리 왕이여)  
기 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 마 5:1~12 ..... 인 도 자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설 교..... “팔 복” ..... 인 도 자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5장부터 복이라는 단어가 9회나 등장하면서 복 받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소개가 산상수훈이고, 그중에 팔복은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가지 복된 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자들은 모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

면 불쌍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삶이란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 외형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팔복을 생각하면 좌절감과 낭패감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같이 지상에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이사야의 진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갈증,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핍박은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권력의 수직상승 같은 성공의 비법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 복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실망하여 등짝을 급하게 돌이킬 사안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단정하십니다. 복을 주님과 무관한 나의 유익으로만 여긴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고 우리에게 가까이함이 복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밀착과 연합이 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됩니다. 애통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멸망당해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애통입니다. 특이한 것은 애통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려고 오셨기에 애통의 대상은 모든 시대와 온 땅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고도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든 모든 자들이 애통의 대상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도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먼저 선포하고, 그 이유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나 개인의 일이 잘 풀려서 받는 위로는 아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과 죄 사함과 죄 사함 때문에 받는 위로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밀려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 (엡 2:19)이라는 최고의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288장 ..... 다 같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폐 회 ..... 주기도문 ..... 다 같 이

### (교 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머리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전율이 가슴으로 전달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은교회**

의정부시 오목로 91번길 45-10 (부용초교 뒤편)

☎ 852-1009, 0691

홈페이지 - [www.sechurch.kr](http://www.sechurch.kr)